

이렇게 들었다

관광자원 개발

“동강을 그냥 흐르게 하라”

■발우를 씻은 물을 합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합부로 버리지 마라.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을>

■대왕이시여, 범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지 말고, 파괴하지 말라. 물을 대지 말라. 이것이 무릇 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살차니건사 소설경>

■국토와 중생의 은혜는 참으로 크기 때문에 보답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일체의 존재를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동시에 산, 강, 공기 등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승심지관경>

■땀 건설했던 한승을 돌리는 듯 했던 동강강원 정선·영월군이 이번에는 초대형 스키·골프 리조트 계획에 밝혀 사지(死地)로 몰리고 있다. 특히 동강 보존에 발 벗고 나서는 듯했던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 유치에 앞세워 리조트 건설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조트 파국은 더욱 크게 번지고 있다.

강원도의 리조트 계획안에 따르면 동강 인근 가리왕산에 골프장, 스키장과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타운이 세워진다. 이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있는 용평리조트를 능가하고, 내로라하는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객실 897개) 보다도 훨씬 크다.

환경 전문가들은 리조트 완공 후, 연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각종 생활하수와 골프장 농약 등이 30분 내에 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후의 사태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래프팅객을 피해 가리왕산 등으로 숨어는 수달, 비오리 등 희귀 동물들이 이번에는 스키·골프 인파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 동강의 수질이 엉망이 돼 생태계 전반이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지명하다.

동강은 강원도에 있지만 우리 모두의 강이다. 그런 데 돈에 눈이 먼 강원도 행정당국에서 ‘관광자원=개발’이라는 등식을 세운 채 동강의 생태계 파괴는 제쳐놓고 ‘스키·골프 리조트’를 계획했던 관광정책은 졸속 그 자체다.

부처님은 <사분을>에서 ‘일체의 농작물과 화, 초목의 선립 등을 태우거나 파괴하지 말고 물을 빼거나 대지 말라 자르고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같이 생명을 가진 짐승과 벌레들이 있으므로 최에는 중생들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괴롭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우리에게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었다.

관광자원을 늘리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고 멀리서 감상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보고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 절실한 때다.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자연’이다.

오종욱 기자

한국교육, 왜 이지경이 되었나

불자 세상보기

한국 교육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교원 정년 연장, 교원 성과급, 7차 교육과정, 이른바 중초교사 임용, 자립형 사립고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 한학학과 문제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합리한 교육정책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멍들지 않는 곳이 없다.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이 모든 혼란은 교육의 기본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법에 기인한다. 정치권력이 교육계 내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는 개혁 유도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강제집행 카드

를 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공론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개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세대간 대화를 통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현상인 교육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딱 주무르듯 해서 안 되는 독특한 사회 부문이다. 개혁이 전 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도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한 개혁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도덕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 된다. 개혁에 지친 이해당사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빈정거릴 뿐이다.

교대생들의 자퇴 파동을 보자. 초등교원의 부족 현상은 정년 단축, 농어촌 근무기피, 이직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

교사임용·자립형 사립고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 불합리한 교육정책 투쟁

터 만성적인 것이었음에도,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지난 7월 36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002~3학년도에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한시적으로 초등교사에 임용하겠다는 ‘중초교사안’을 제시하였다. 돈이 없어 풍나를 교실을 해소하지 못했

데, 약간의 돈이 생겨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왜 반발할까? 최초의 중초교사안에 대하여 교대생들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였고, 교육부는 ‘단기 교대 학점 이수제도’와 ‘정규 학사원칙제도’로 거부 양보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입학 규모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부의 기반적이고 지속적인 교원수급정책에 실망해 더 이상 정상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힌 자퇴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에 불러 나와 ‘불가피한 비극적 선택이었으며’, ‘사사건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하는



구승희

중국대 교수
윤리학과

말이나?’고 거꾸로 항변하는 판리의 모습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우리는 교대생들이 자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 자퇴를 원하면 학교장에게 제출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내느냐 말이다. 순수해야 할 대학생의 권리 주장이 정치적 행위를 달아가는 것이 씁쓸할 뿐이다.

이처럼 교대생들의 주장이 부당하여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부를 성토하는가? 공적 의사결정의 코스트(비용)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 나라 교육정책을 마치 연습으로 디디알(DDR) 밟듯이, 가볍게 결정해 버리는 공직 윤리를 무시한 무책임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사)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법률스님)가 14일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심리적 접근 방법 평가 및 전망’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 제이티에스 워크숍 실직자 위한 심리적 접근방법

고영씨(서울자유의집 정신보건센터장)의 ‘심리적 접근 전략 모색’, 방기연씨(그레 심리상담연구소장·정토수련원 깨달음의장)의 ‘집단수련(상담)의 효과와 전망’ 두 발표문을 요약했다.

집단수련 핵심 ‘自他不二’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 그에 따르는 심리적인 충격과 좌절이 더 중요한 문제다. 당장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심리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수련은 이러한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토수련원에서 진행했던 집단수련 프로그램은 좋은 예다. 이 프로그램은 화두

아보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깊은 수련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무력감과 자기상실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집단수련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친밀감을 느끼며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진행자의 역할은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나 참가자나 스스로가 ‘돌이 아닌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단수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노숙자 관리사업 체계화



노숙인을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기간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일시 노숙인이 있을 수 있고, 공간차원에서는 거리-시설 노숙인이 있으며, 노숙하게 된 요인도 저마다 다르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노숙인들에게 접근하는 출발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권의 존엄성 차원에서 이들을

적고 체계적인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화된 ‘쉼터’를 통해 노숙인 관리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의뢰기관과 사회복지관, 자활훈련기관 등과의 연계는 노숙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기존의 ‘쉼터’ 뿐만 아니라 지역생활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가정복귀 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달마가 수저로 간 까닭은?

문의 (주)KG-NET <金剛> 051) 582-7579



재질/ 스텐레스 27종
코팅/ 금 (달마상부분과 수저 뒷부분)
종류/ 남,여 1Set. 공용수저
여러가지 디자인중에 설문 조사후 결정모델

손가락 뒷면에 행사내용,관장지이름,사찰 이름등(일정수량이상) 새겨드립니다.

인간이 태어날때 백수를 누릴 수 있도록 태어났건만,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먹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되는 것을 듣다보니, 백수를 다하지 못해 그 중에 으뜸인 먹는 것을 불심으로 한다면 어찌 백수를 누리지 못하리..

제작지원: (주) 대왕금속 (주)대림산업 달마shop